

경기도의 모든 ART를 만나다!
전시콘텐츠 공유 플랫폼

www.klookart.org

경기록아트



작업실 탐방 02
서양화가 박종문

문화행사소식 03
문화의 날 행사
함께 그리는 연천

미술관 탐방 04
어우재 미술관

특집_ 이달의 작가 06
단색화가 하종현

칼럼 08
경기인 미술인
서양화가 이승환

미술계 소식 09
전국 대학·대학원 우수작품전
청년작가 발굴 보고(寶庫)전

특집_ 미술계 동향 10
서양화가 전찬훈
Prism을 통한 빛의 시각 언어

전시리뷰 11
한일미술교류 "Today-唐津"전
행주산성 스케치대회

공모전 소식 12
모란현대미술대전/전통미술대전

특집_ 경기미술소식 13
인천아시아아트쇼 2022

전시 및 행사 리뷰 14
미술관련 교육 및 행사
개인전 및 단체전

경기록아트 소개 16
아카이빙

금당리가 좋아서 행복한 작가 박종문



11월 여주의 너른 빈 들판을 길게 지나며 도착한 박종문 작가의 작업실로 가는 길은 봄 나들이 나온 날처럼 푸근했다.

대로에서 저만치 들어가 보무도 당당하게 서 있는 붉은 벽돌 건물, 늦가을의 분위기에 빠져들게 하는 나무들과 2개의 정자 사이, 한때 번성하던 금당리 우체국, 그곳은 'mono art gallery'라고 보이는 검은 간판과 함께 소박하고 정겨움이 가득한 박종문작가의 작업실이었다.

오랜 시간 교직에서 미술을 가르치며 작품 활동을 해 왔던 작가는 예술가로서 작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전업 작가로의 삶을 살아가고자 2016년 퇴직 후 2017년 11월 지금의 특별한 작업실로 이주하였다.

이 특별한 작업실은 1995년 증축된 우체국으로, 1998년 IMF라는 큰 풍파를 만나 체신청에서 일반인에게 팔렸다. 마을회관에 미술 무료봉사를 나가던 박종문작가는 우연히 비워있는 우체국을 보고 첫눈에 반한 듯 건물주에게 연락하여 4년의 걸친 염원으로 박종문작가의 작

업실이 되었다고 한다.

작품들이 빼곡이 자리잡은 한쪽 구석의 금고를 보면서 우체국이었던 특수성과 박종문작가의 손길로 작업실의 이색적인 비밀창고로 보여짐에 작가라면 누구나 이러한 작업실을 부러워 할 것 같았다.

매일 2마리의 강아지와 함께하는 산책, 마을 주민들과 나누는 소소한 일상의 기쁨과 감사를 작품속에 열정적으로 녹여내는 그는 무척 행복한 작가임이 틀림없다.

작품주제 중 '9살 기억'은 1968년 초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에 전기도 없던 호롱불시골소년이 처음으로 서울 구경을 갔던 기억을 풀어낸 작품이다.

어머니와 친척집 방문이었지만 처음으로 접하는 서울풍광은 말 그대로 충격 그 자체였다. 높은 빌딩, 많은 자동차, 그 중에서도 서울의 야경은 정말 장관이었다. 어린 소년의 시야로는 이해 할 수 없는 황홀함?! 희미한 호롱불아래에서 생활했던 나는 그 야경의 화려한 불빛을 그냥 두고만 볼 수 없었기에 밤이면 밤마다 닳선 서울시내 골목길을 누비고 다녔다.

높은 빌딩사이로 쏟아지는 네온사인과 수많은 불빛에 홀린 소년은 정신 줄을 놓고 길을 잃어 헤매기도 여러 번이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 어른이 된 2010년 서울의 어느 골목길에서 문득 오래전 그 소년을 만났다. 두근거리는 마음과 설렘으로 아련한 기억을 간직한 채 작업실에서 소년이 되어 캔버스 위에 그리기 시작한 것이 지금의 작품으로 다시 살아나 기억되고 있다.

'일상(Daily Life)'이란 작품은 우리 모두가 반복되는 삶의 소중함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오늘하루의 시작이 있으면 분명 하루의 마무리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는 반복되는 일상을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내가 매일 반복되는 일상적인 기억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캔버스에 오롯이 담아보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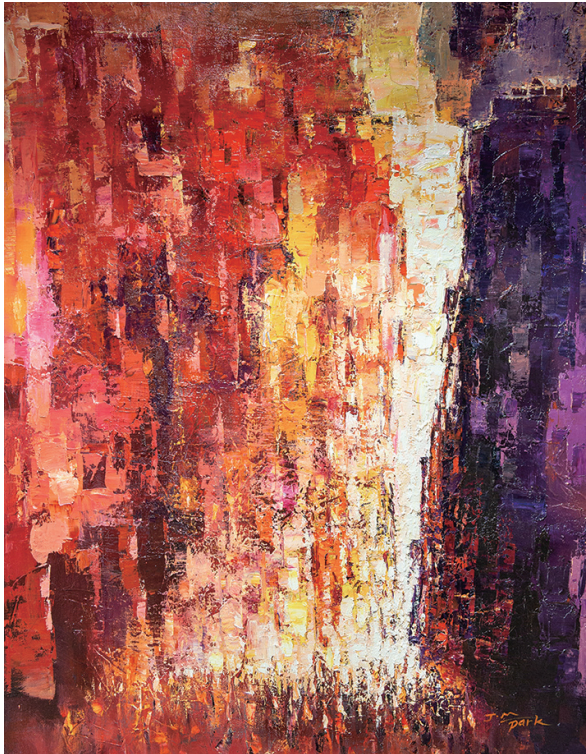
아직은 그만큼의 그릇을 만들지 못했기에 담아내기에는 아쉬움이 많지만 나는 매일매일 그 일상이 감사하고 감사하다.

— 작가노트중에서

또 다른작품의 주제인 'MOM(맘)'은 어릴적 고향의 미루나무숲이 있는 곳에서 부모님의 일하시던 모습을 떠올리며, 어머니의 강인하지만 부드럽고 따뜻했던 모습을 미루나무로 은유하여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으며, '그곳에 가면'은 부산의 영도다리에 앉아 바다풍경을 바라보며 떠오르던 영감을 표현한 작품으로 빼곡히 채워지기도 하고 비워지기도 하는 형상과, 다채로운 색감으로 표현한 작품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인생의 의미와 모습을 담고 있다.

진솔한 작가의 이야기와 그가 표현해 보이는 인생의 여러모습을 통해 행복이 전해오며 우리도 새로운 내일을 의미있게 조망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였다.

글. 룩아트 편집부



서양화가 박종문작가의 작업실에서

(左)Into the Memories(아홉살 기억)_ 145.5x112.1cm, Oil on canvas, 2021
(右)Into the Memories(Daily Life)_ 100x80.3cm, Oil on canvas, 2022

경기도 문화의 날 행사

“함께 그리는 연천”

경기도 문화의 날
“함께 그리는 연천”

전시기간 : 2022. 12.1 THU - 12.31 SAT
개막식 : 2022. 12.1(목) 오후 3시
전시장소 : 연강갤러리 (민통선 내)
경기도 연천군 중면 군중로 885 / T. 031)834-4100
* 관람시간 : 10:00 ~ 16:00 (매주 화요일 휴무)

(사)한국미술협회 연천지부 참여작가

김기상 김미애 김봉숙 김운숙 김태영 박신구
박연순 박용득 박현자 서용인 송마루 오상선
이돈숙 이명희 이순덕 이정훈 이충열 이현지
조정화 최성순 최정숙 허부행

■주최 연천군 연천군 ■주관 (사)한국미술협회 연천지부
■후원 연천군청 문화체육과



▲재인폭포 현장

▶덥싸리공원 현장



연천지부에서는 경기도 문화의 날 행사로 " 함께 그리는 연천" 이라는 주제로 재인폭포와 덥싸리 공원 일대에서 행사를 진행했다.

11월 5, 6일은 재인폭포에서 11월 12일은 덥싸리 공원에서 연천 군민과 관광객들 및 지역작가들이 모여 함께 공동작업을 했다.

가을에 열리는 다양한 축제에서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작가들과 함께 즐기는 문화예술 활동으로 작품에 참여한 관광객들에게 SNS를 활용한 공지를 통해 재방문의 기회를 살리며 축제의 모습과 감동을 전하여 연천을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이다.

열린 두 곳의 축제 현장에 대형 캔버스 각 200호, 300호를 각각 2개씩 이틀간 설치하여 현장에서 느낀 감동을 관광객들과 주민들이 함께 아크릴 물감, 먹 등의 재료를 사용해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했다.

완성된 작품은 12월 1일~12월 31일까지 연강갤러리에서 전시하며 축제를 기억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



찾아가는 길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어우실길 261
 관람시간 동절기 10:00~17:00 / 하절기 10:00~18:00(매주 월,일휴관)
 관람료 어른2,000원 / 어린이 청소년1,000원 / 유아, 65세이상 무료

경기도와 충청북도, 강원도 삼도를 아우르는 609m 고지 오갑산 자락 아래,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어우실길 261, 들녘이 좋아 들로 온 겸손한 큰 물고기처럼, '어우재미술관'은 돌돌돌 쉬지 않고 흐르는 개울가를 친구 삼아 평화로이 어여쁘게 자리하고 있다.

'어우재' 미술관은 예전에 호랑이가 출몰했고 호랑이 울음소리에서 붙여졌다는 '어우실'이란 마을 이름에서 가져온 순우리말이라 한다.

길고 긴 산골 마을 길을 끝없이 달릴 것만 같다가 도착한 그곳, '어우재미술관'에서 만난 도예작가이자 서양화가인 백중환 관장님은 해맑은 미소의 소년처럼 정겹게 우리를 맞아주었다. 백중환 관장님께서 내려준 향긋한 커피를 마시며 미술관의 건립 과정과 취지에 대한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

2005년 11월 건립 후 2007년 경기도 미술관으로 등록하였고 현재는 개인 사립 미술관으로 전환 되었다고 한다.

다음 어우재미술관을 소개하는 인사말에서 관장님의 철학이 묻어나움을 느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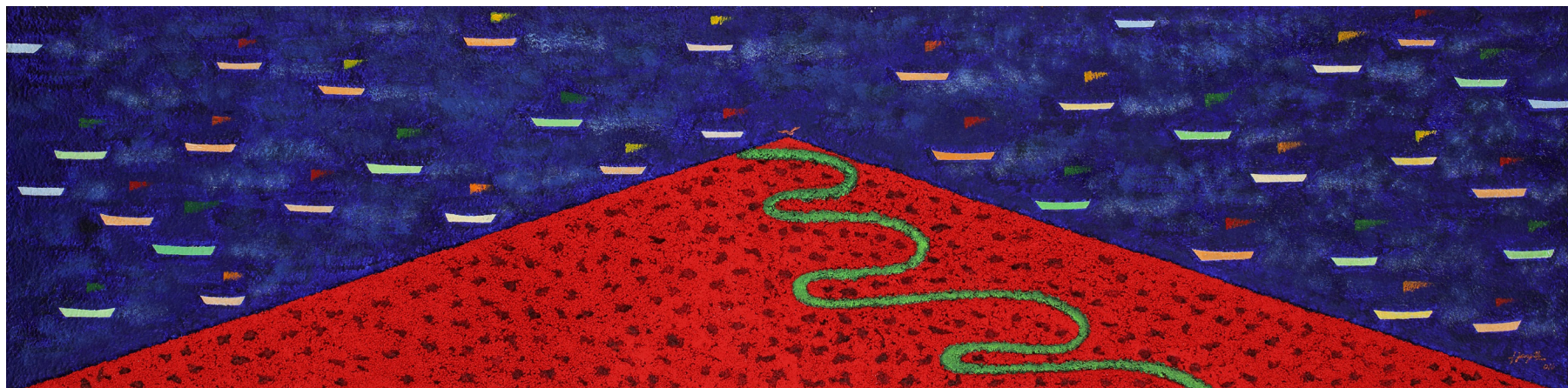
어우재미술관은 회화, 공예, 조각, 도자벽화등, 예술분야의 우수한 작품을 수시로 전시하고, 기획전과 특별전을 통하여 도시와 지역 간의 교류와 발전을 도모한다.

‘가족사랑’을 중시하며 유소년들의 미술이해 도움과 예술 소외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맑고 넓은 자연림속에서 폭 넓은 예술품 감상과 도자체험등 예술의 생활화로 아름답고 다정한 사회실현에 한 몫을 하고자 한다.

백중환 관장님은 홍대 미술대와 동대학원, 도예과를 졸업하였으며 다수의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1990년 원 재료인 흙과 불에 대한 깊이 있는 고뇌와 연구를 통해 사고의 전환을 함으로써 도자와 회화를 융합하였다.

2005년부터 여주시 어우실마을에 터를 잡고 자연을 배경으로 일상에서의 느낌을 도자와 회화를 접목해 동양화와 서양화가 어우러진 느낌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으며 왕성한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어우재미술관에서는 도예작가 신철순 작가의 제9회 개인전과 민화작가 김기정 작가의 제2회 개인전이 전시중이다. 한적하고 조용한 풍경과 멋진 예술 작품이 기다리는 어우재미술관에서 소중한 경험을 해보길 바란다.



어부의 아리랑 180x45cm, Mixed media on canvas, 2013

어우재 미술관

글. 북아트 편집부



‘가지 않은 길’

십 수 년 전 내 작품에 붙여진 제목이다.

창작이란 행위는 가지 않은 길처럼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한 곳에서 본인의 영혼을 재탄생 시키거나 아니면 수많은 경험치들 속에서 새로운 창작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젊은 학창 시절 도예를 전공하면서 흙과 불의 물성을 쫓다 도예가 갖는 공예적 프레임을 깨고 순수 영역으로의 확장을 위해 가지 않은 길에 대해 무거운 화두를 붙들고 지금 여기에 있다.

점토의 공예미와 조각의 조형미 회화의 순수미를 융합하여 나의 속 이야기를 버무려 내는 것이다.

내가 사는 어우실은 내 이야기의 본산이다.

동막골 같은 우리 동네 모습을 침묵 없이 그대로 그리면 나의 어우실 이야기가 된다.

단지 아쉬운 것은 해년 마다 찾아오는 소쩍새의 밤 노래가 조금씩 멀어져 간다는 것이다.

그만큼 밤의 등불 수가 많아져 간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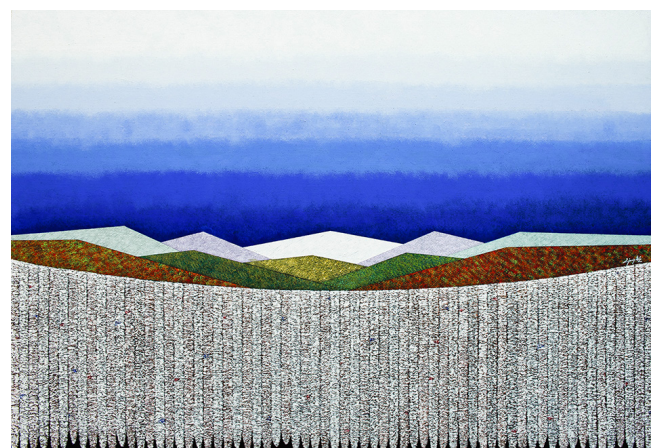
더 등불이 밝아지기 전에 우리 동네 이야기를 수필 같은 그림으로 캔버스를 채워 나갈 것이다.

- 작가노트중에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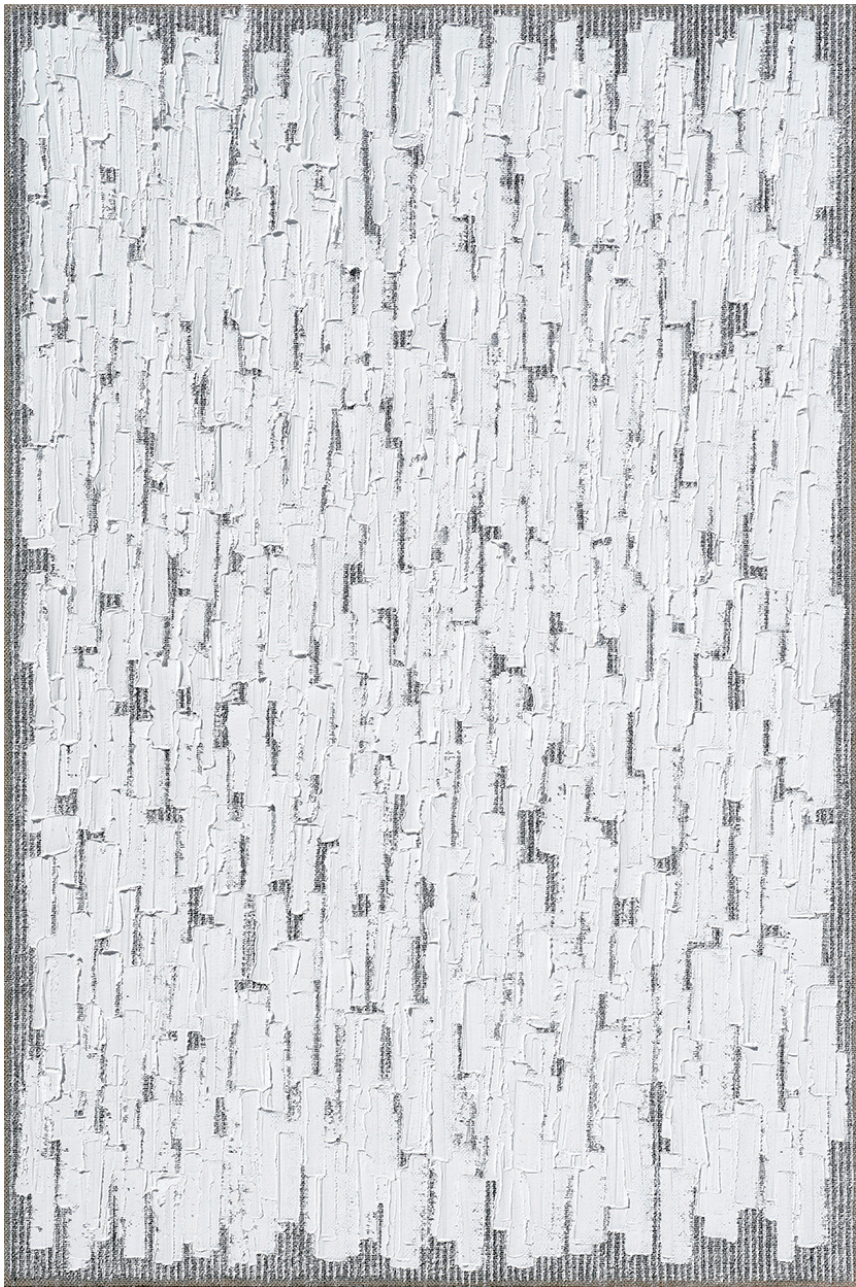
어우재



담 180x45cm, Mixed media on canvas, 2012



어우실사계-I 162x112cm, 점토 한지 아크릴칼라 on canvas, 2020



Conjunction 20-04_ 180x120cm, 2020 (사진제공 하중현예술문화재단, 사진촬영 김상태)



Conjunction 20-09_ 100x100cm, 2020, Oil on hemp cloth (사진제공 하중현예술문화재단)



Conjunction74-26_108,9x222,9cm, 1974 (사진제공 하중현예술문화재단)

하중현작가(87)가 평생 화두로 삼아온 '접합(Conjunction)' 으로 '마대작가' 라는 별명과 추상미술의 '아이돌' 이라는 수식어가 생긴 것은, 평생 마대와 씨름하며 수행하듯 일궈낸 그의 독보적인 예술세계와 한국 추상미술의 아버지로 현대미술의 중심에 우뚝 선 그를 대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아흔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아방가르드' 정신을 강조하는 그는 세계미술 시장에서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단색화의 선구자이다. 그는 1960년대에 작품활동을 시작하여 1970년 당시 가장 전위적인 미술인 집단인 AG협회 활동을 거쳐 '접합' 시리즈와 한발 정진해 나아간 '이후 접합(Post-Conjunction)' 연작의 역사를 이루어 내었다.

작가는 울이 굵은 마대 뒷면에 두터운 물감을 바르고 천의 앞면으로 물감을 밀어 넣는 배압법(背押法)으로 노동집약적이고 독창적인 기법을 구축하며 새로운 추상화의 장을 열었다.

“마대에서부터 뒤에서 밀어낸 물감들이 마대의 형태에 따라서 이상한 형태, 꼬부라지는 형태도 나오고, 좀 굵은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가는 것도 있고, 뭐 여러가지 형태가 나오는데 사람의 얼굴도 똑같은 얼굴이 없잖아요. 자기가 자기의 얼굴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그의 독창적이고 파격적인 작업방식은 그만의 조형언어로 자리 잡으며 성가를 높이고 있다. 서구미술에 기대지 않고 작가 스스로 발견한 재료와 새로운 방식의 실험정신은 잠재된 정서를 회화로 표현해내며 본질과의 접합을 이루어 내었고 한국의 단색화를 세계에 알린 원로화가로 젊은 컬렉터가 가장 사랑하는 작가중 한명으로 꼽히며 그는 활발한 작품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미협 이사장을 역임하고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교수(1962~2001)로 40여 년간 재직하며 홍대 미대 학장(1990~1994)을 지낸 후, 서울시립미술관관장(2001~2006)을 마지막으로 공직을 떠나 현재 아흔을 바라보는 나이임에도 작품 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그는 홍익대에서 받은 퇴직금 2억5000만원으로 어려운 젊은 작가들을 위한 '하중현현대미술상' 을 제정하여 지금까지 후배 작가들을 키우고 있다.

“이제 나이가 많아 여기저기가 고장나 속도는 느려졌지만
그래도 계속 작업 합니다. 작업하는 것이 가장 행복해요.”

—하중현

—평론가의 말

하중현은 시각적이고 영적인 현실을 완벽한 전체론적 환영으로 융합해 내는 데에 탁월한 재능을 가진 화가이다. 그의 작품은 전체론적 자각의 과정을 통하여 생겨나는 물질적 아이디어로서 예술을 구현한다.

첫째, 그의 회화는 비교적 고요하지만 침울하지 않다는 점이다.

둘째, 그는 정적을 통하여 침묵을 기반으로 유지되지만 표현주의의 미묘한 형태로 행동을 취하는 혁명적인 입지를 고수한다.

하중현의 의도는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을 향하고 있다. 그것은 자신을 내세우는 주장이 아닌 겸손함을 지향한다.

나는 하중현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과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감탄할 따름이다.

나는 벽 위에 구현된 흔적들을 본다. 그것은 자랑스러운 역사와 문화의 흔적이며, 그의 예술이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에도 지속될 것임을 말해주는 미학적인 증거이다. 그의 작품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관람객들에게 용기와 만족, 영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강한 희망을 안겨준다.

—미술평론가 로버트 모건의 하중현: 벽위의 흔적들 중에서 요약 발췌—

하중현은 한국단색화를 대표하는 작가로서 국립현대미술관<한국의단색화>(2012),제56회 베니스비엔날레 병행전시 <단색화>(2015), 벨기에 보고시안재단 <과정이 형태가 될 때:단색화와 한국 추상미술>(2016), 상하이 파워룸미술관<한국의 추상미술:김환기와 단색화>(2018), 베니스비엔날레 병행 회고전 등 주요 단색화 그룹전에 참여했다. 하중현 작가의 작품은 최근에 소장된 중국 박시즈미술관, 네덜란드 보르린던 현대미술관을비롯해 뉴욕현대미술관(MoMA), 솔로몬R. 구겐하임미술관, 시카고미술관, 홍콩M+미술관, 도쿄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삼성미술관 리움과 같은 전세계 유수의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단색화가 하종현

—작가의 말

2차 대전이 끝나고 조금 있으니까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와중에 사실은 뭐 예술, 그림 이런 것에만 몰두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안 되어 있었고 앵포르멜 계통의 처절한 인생의 마지막까지 체험했던 그런 일들이 작품에 등장하는 것으로서 전부의 작품의 경향이 어두침침하고 어둡고, 방향도 잡지 못해서 혼미한 상태, 이런 것이 그림의 주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것이 꼭 우리 민족 내지는 한국 사람이 가야 될 방향이고 정말 올바르게 가고 있는가, 이런 문제를 부딪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길을 찾아보자 했지, 일단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을 올 스톱을 하고 새로운 것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자는 취지로 한국 아방가르드협회라는 회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는 여태까지의 기존의 어떤 개념을 전혀 필요도 없이 새로운 것부터 출발을 하자 최초의 우리나라에서 시도해 보는 운동으로서의 시발점이 AG 에서부터 찾으려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AG는 그것이 갖고 있는 방향이라기 보다는 그 정신이 더 중요했던 것이 아닌가 싶죠. 그때는 저도 입체적인 작품을 하고 현실참여 같은 것도 말하자면 철조망을 쓰고 마대를 쓰고 굉장히 재료 자체가 강한 그런 개성을 갖는 그런 것을 쓰면서 군사정부일때 하나의 내용적으로는 마음으로는 반항 같은 것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다시 평면으로 돌아 간다면 옛날의 평면으로는 절대로 가고 싶지 않고 그렇다고해서 또 남이 해 놓은 일에도 말을 담그기도 싫고 나만의 갈 길이 뭐냐, 일반적으로 서양에서는 캔버스에다 붓에 물감을 발라서 메꿔나가거나 칠해 나가는 방법이라면 이것을 뒤에서부터 해보자 하는 작업으로 해서 마대를 뒤에서 물감을 앞으로 밀어내는 새로운 시도를 해봤죠. 이것은 미술의 역사를 어떻게 보면 거꾸로 해석한 것이기 때문에 서구적인 기본틀이 딱 짜여진 사회에서는 이런 운동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역할을 한번 시도 해 봤던거죠. 물감을 뒤에서 밀어내면 마대와 그 물감이 밀려 나오면서 물감 자체가 표정을 갖기 시작하고 표정을 갖기 시작하면 작가는 행위를 하고 내가 밀어내는 힘은 있지만 물감의 물기라든지 모든 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들이 표정을 만들어 내서 나온 거란 말예요. 마대와 물감과 작가와의 삼위일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에센스만 남겨놓고 다 제외된 굉장히 단순한 그 단순하다는 것은 결국 다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다 포함 시키면서 그것을 단순화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 다 녹아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물감을 많이 칠하고 두껍게 칠하고 겹칠하고 그러면 적당한 허물이 감춰 지는데 이것은 감출래야 감출만한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딱 이렇게 나오는 표정 이것이 바로 직접적으로 보는 사람에게 와 닿기 때문에 작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든가 눈가림을 하고 있다든가 하는 것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정직한 작품을 하고 있지 않나 해서 내 작품에는 거짓은 없다. 서툴게는 할 수 있어도 그런 느낌을 늘 갖습니다.

내 작품에는 그 표정이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는 아주 한정된 힘으로써 행위가 가미 되죠. 작가는 너무 작품에 작용을 주면 원래의 작품의 의미가 손상되기 때문에 꼭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주어야 할 힘에 한정을 주고 있어서 아주 검소하다 그럴까 잡소리를 안 내려고 잡티를 안 내려고 그런 것이 작품에 깔려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작품을 뒤에서 밀어내는 일만을 35년 했는데 한곳을 향해서 벽을 밀고 35년 있으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정말 하나의 도, 그게 있고 한곳으로만 향하고 늘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외부의 잔잔한 것은 다 없애 버린 거죠. 이것은 하나의 도의 경지가 아닌가 싶죠. 소재가 떨어지면 자기가 자기를 모방하는 그런 시기가 오죠. 이 시기가 작가로서는 고인물이 썩기 시작하는 것 같은 그런 역할이죠. 이걸 안되겠구나 늘 나를 갖다가 반복을 하더라도 이것을 모방을 해서 는 안 되는구나 이때는 변화를 가져와서 바꿔야죠.

내일 모레 80을 내다보는 사람으로서 또 새로운 작품으로 또 바꿨단 말이에요. 많은사람들은 선생님이 지금 작품을 안 바꿔도 작가로서 할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바꾸느냐 해요. 그런데 작가는 남들이 보기 좋게 남이 가는 일상적인 일에 동조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 하는 것을 스스로가 알아야 되고, 그 사람의 결정인데 난 내 평생에 하던 일 중에서 그렇게 많은 변화도 해 왔는데도 아직도 남아 있는 분야가 있어요. 내가 지금 시작한 것이 과거의 35년 동안 해서 도달한 그 지점을 바로 갈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 생각에는 아마 10년 후에는 하나의 열매를 맺지 않겠느냐.



경기인
미술인

대자연의 서정적 New Realism

서양화가 이승환

글. 김재덕 미술컬럼니스트

평생 전업 작가로 활동한 이승환 서양화가는 구상 즉, 신사실주의에 입각한 화풍으로 작가만의 독창적 세계를 표현해온 대표적 작가이다. 작가는 ‘자연의 숨소리’라는 테마로 한적한 야산과 강, 들길, 북한산과 한강, 백두산 등 우리 자연을 파스텔 톤의 블루그레이를 통해 몽환적 세계를 감상하게 해 준다. 캔버스에 반복되는 영겁(永劫)의 붓질을 통해 나타나는 추상적 단순성은 리얼리티를 가지면서 함께 깊은 관념적 감상의 세계로 몰입하게 해주며 지금까지 감상해 왔던 자연의 풍경화를 새로운 감성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여준다.

‘자연의 숨소리’를 통해 이승환화가는 시각적으로 전달되어 지는 자연그대로의 풍경을 표현하면서도 작가의 캔버스는 극히 절제된 색채와 단순한 구도로 추상표현주의의 내면의 표현처럼 느껴지는 그만의 독특한 창작의 세계를 구현해 나가고 있다. 최근작 ‘인생’은 100호의 캔버스에 농익은 블루색이 원근의 구분 없이 내려앉고 한 켠의 목선이 적막함으로 정박하여 수면에 비쳐진 자신의 복제된 시물라크(Simulacrum)를 통해 신사실주의의 관념적 세계의 극치를 표현해 주고 있다.

‘인생’은 작가가 의도하는 극도의 단출한 이미지만



으로 구상표현의 시각적 사물의 상을 통해 화면에 표현되지 않은 허상(Simulacrum)의 관념을 남긴다. 보이는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무엇을 보든지 간에 작가는 주관적으로 느끼고 해석하고자 한다. 작가가 의도하고자 하는 우리의 기억 속에 복제된 풍경화는 눈으로 보여지는 현실의 상(像)이 아닌 추상적인 새로운 의미로 초월적인 이데아(Idea)의 주관적 실체인 것이다. 이를 통해 작가는 새로운 시각이나 지금까지 못했던 이면의 풍경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서양화가 이승환은 신사실주의의 관념적 접근과 창작활동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 시적 감수성으로 주관적인 실체를 접근하고 있다. 그렇기에 300호의 대작인 ‘환상(발랑저수지)’와 같은 작품 앞에 서면 시각적 이미지의 단순미에 그치지 않고 우리 조상들이 남긴 수묵담채



에서 느낄 수 있는 한편의 시서화(詩書畵)를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작가는 캔버스를 통한 자연의 풍광과 함께 그가 가지는 문학적인 감수성 개입을 통해 회화표현의 한계점을 넘어서는 초월적 이데아를 감상자들에게 전달한다. 사실주의에 입각한 단순히 보이는 사물의 표현이라면 작가가 의도하는 문학적 사유의 세계를 느낄 수 없을 것이다. 작가는 순수한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보편적 공감을 이루고 감성으로 전달되는 시적 감수성을 통해 그가 펼치고자 하는 복제된 시물라크르의 실상과 허상의 풍경을 이야기 하고 있다.



현실의 세계에서 인지되는 작가의 풍경화는 블루그레이의 몽환적 색을 통해 하나의 복제된 풍경을 만들고 복제된 풍경은 감상자 저마다가 느껴질 한편의 시적 감수성으로 만들어 지며 시를 통해 재 생산된 복제물은 작가의 풍경을 눈을 통한 감상이 아닌 가슴으로 사유할 수 있도록 한다.

화단에서 만나는 화가 이승환은 평생을 전업작가로 창작활동과 함께 한 만큼 세상 사람 좋은 후덕한 인품이다. 화업(畵業)을 이루기 위해 신미술회를 이끌어 나가며, 한편으로 많은 후학들도 양성해 냈다.

그의 창작 활동에서 탄생된 자연의 숨소리는 단순히 시각적으로 만족하지 않고 작가가 이루고자 하는 가슴을 울리는 시정의 감성으로 다가온다. 구상표현을 통한 안정된 작품 활동에 안주하지 않고 New Realism의 표현에 대한 도전적 창작 활동으로 자신만의 표현기법을 확고히 하여 동시대의 많은 감상자들과 사유하는 그의 작가 정신은 후덕한 인품과 함께 새로운 작가 내면의 모습을 보여준다. 최근 신작준비를 위해 호숫가에 펼쳐진 수련의 표정을 가슴에 담은 작가의 모습에서 어떠한 싹겨질로 새로운 작품이 탄생될지 호기심 어린 기대를 가져본다.



전국 대학 · 대학원 우수작품전

청년작가 발굴 보고(寶庫)전

ANGELI ART MUSEUM 전국 대학 · 대학원 우수 작품 청년작가 발굴 보고 (寶庫)전

권오준 김예린
김혜린 손은화
서혜인 오세운
장수연 조영배
최선주 Schreiben

안젤리미술관 대학 · 대학원 우수 작품 <청년작가 발굴 보고 (寶庫) 전>은
예술가의 꿈을 성취하고자 하는 청년 작가들이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제공의 기회입니다.
젊은 예술혼이 깃든 작품 전시를 통해 후일 화단의 거목으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낭만적인 추억의 결실이 되는 보람찬 전시가 되길 기원합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젤리미술관장 : 권숙자 / 공동관장 : 권오상

대상 수상 작가 : 개인전 공간 제공

2022.11.10 Fri ~ 12.31 Sun

10AM ~ 6:30PM (월요일 휴관)



안젤리미술관 1,2 관
ANGELI ART MUSEUM

<https://www.angeliartmuseum.net/>
(1713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이원로 244
Tel : 031)323-1968

일시: 2022. 11. 10(목) ▶ 2022. 12. 31(토)

장소: 안젤리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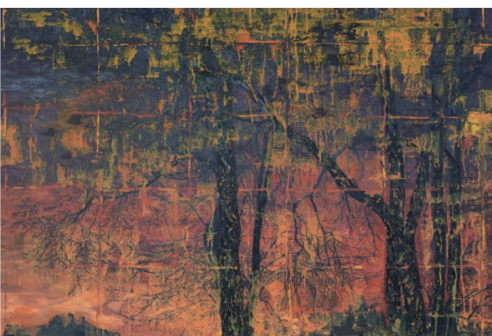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이원로 244 T.031-323-1968

홈페이지: www.angeliartmuseum.net

이번에 개최하는 <전국 대학 · 대학원 우수작품 전 - 청년작가 발굴 보고(寶庫) 전>을 기획한 권숙자 관장과 권오상 공동관장은 젊은 작가를 발굴하는 기회로 열정을 다한 작품이 미술관에 전시되면서, 예술가가 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더욱 활발히 활동하는 <공간 제공>의 기회가 되고자 한다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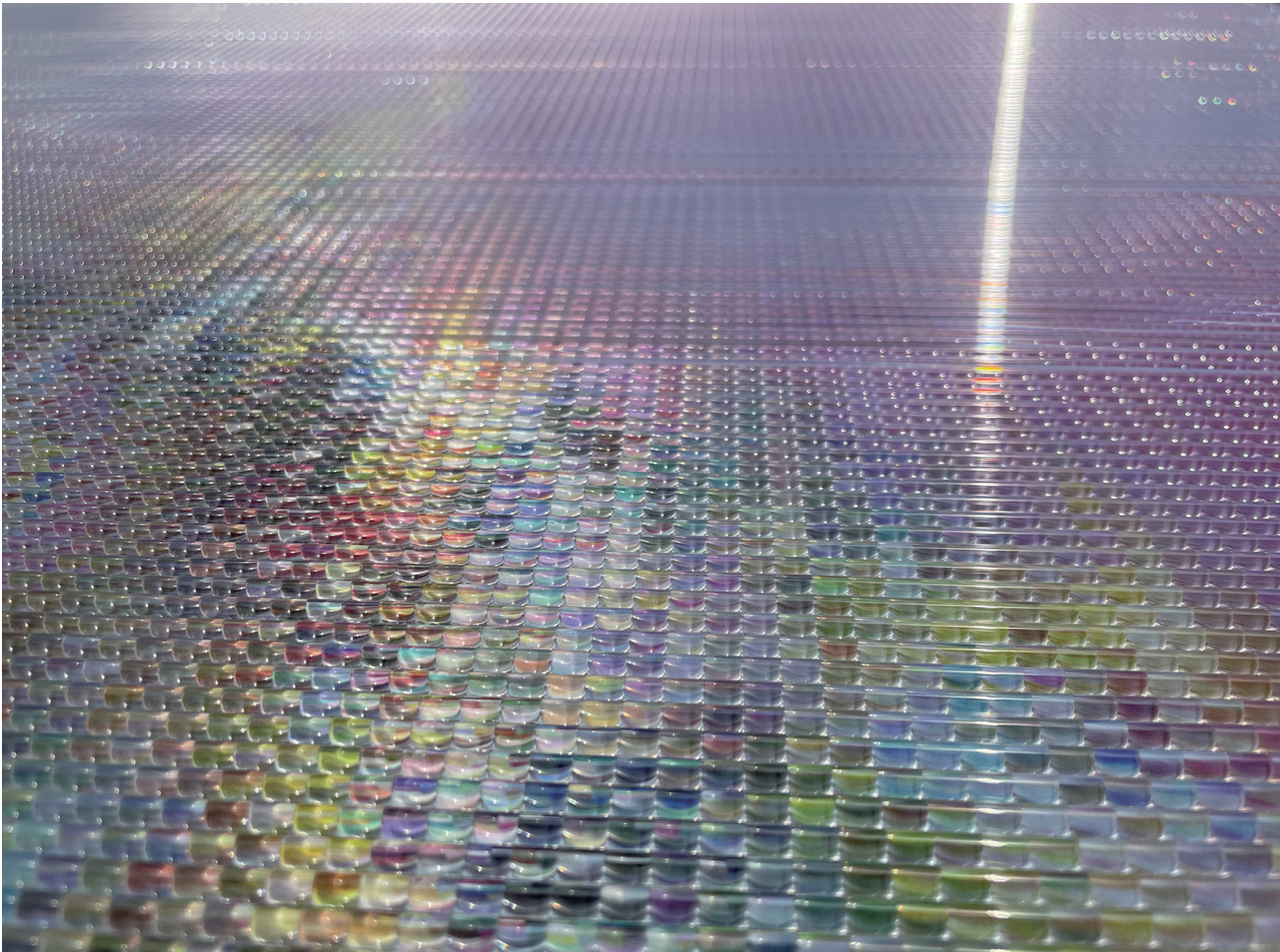
전시를 기획한 권숙자는 안젤리미술관만의 정체성(Identity)을 지니고 예술에 대한 깊이 있는 콘텐츠(Contents)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전시를 기획하면서 젊은 작가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친 대작에 중점을 두었으며 예술적 사고의 크기와 깊이를 관람자에게 선 보이는 기회이며 대작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스케일, 사고의 조직적인 체계의 표현력, 독창적인 기법과 자기만의 표현 양식을 개발하면서 자신의 작업 세계를 펼치며 발전하는 것은, 미술계의 또 다른 인적자원이라고 했다.

그런 취지에서 <청년작가 발굴 보고寶庫전>은 젊은 작가들이 풍요롭게 공간을 공유하며 서로를 통해 영향을 주고 받는 전시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나라 미술계를 이끌어 가는 거목이 되고 나아가 세계적인 예술가로 거듭나길 기대하며 젊은이들의 고뇌와 예술혼 가득한 <청년작가 발굴 보고(寶庫)전>에 독자들을 초대했다.



Prism을 통한 빛의 시각언어

서양화가 전 찬 훈



서양화가 전찬훈은 조도(照度, Lux)의 양과 프리즘(Prism)을 통한 빛의 굴곡 현상을 이루는 시각언어로 창작활동을 하고 있다.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지극히 한정된 시공간적 한계 안에 놓여있다는 사실에 대해 스스로를 환기하고자 하는 작가정신의 원천과 함께 현실과 비현실 또는 실체와 시각 사이에서 겪는 내적 혼란의 부조리한 감정을 삶의 지속성에 대한 작가의식의 놀이로 논거(論據) 한다. 현실과 비현실에 대한 빛의 형이상학은 작가에게 진실한 존재의 비유가 아니며 오히려 진실한 존재가 밝은 것으로 만물이 그를 통해 발생하고 소멸하는 굴곡진 빛의 형상과 감상의 각도에서 변형되는 왜곡(歪曲)되는 착시 현상을 진실한 존재로 회귀 시킨다. 원기둥 프리즘을 통과하는 굴절된 빛의 왜곡은 시각화된 형상과 색의 혼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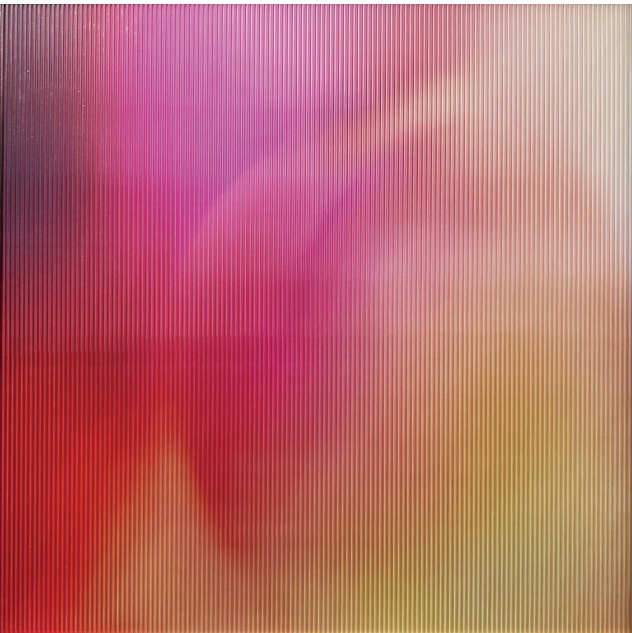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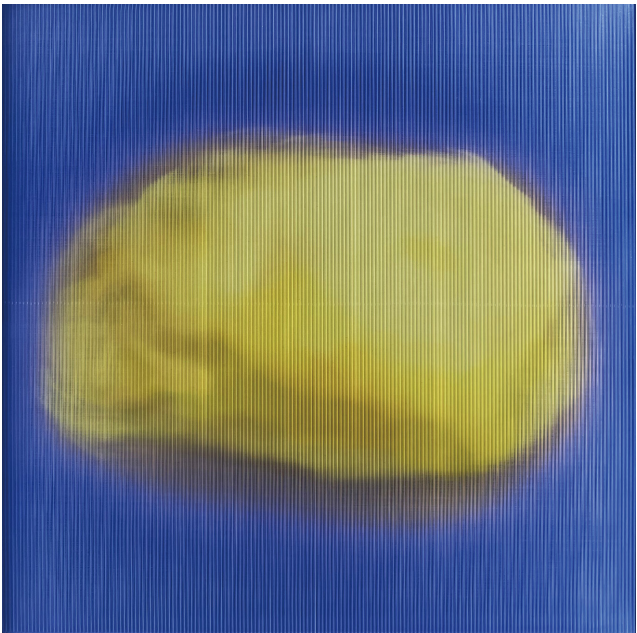
가중 시키고 그 혼란의 이미지를 통해 일상에서 맞이하는 존재론적 자각의 인식에 대해 역설적 감상의 기회를 제공한다.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빛의 혼란 속에서 작가의 현재를 과거로 회귀 시키며 역설적으로 미래또한 현재화 시키는 동일선상에 그의 이상과 새로운 자아를 응집된 빛으로 형상화 한다. 서양화가 전찬훈이 프리즘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빛을 '생명과 형상'의 근원으로 유비(類比)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적인 빛'으로 파악하는 빛의 철학적 전통이 창작활동의 고민으로 엿보인다. 작가의 빛은 생명의 충실, 청정함, 자유, 희망, 기쁨, 신들의 지복의 세계이며 보는 작용의 매체, 보여 지는 대상, 사상의 통찰과 함께 철학적 이데아(idea)의 세계가 자각되는 작가 자기인식

의 인문적인 발생이다. 창작의 산물로 잉태된 빛은 타의적 영향에 따라 발광하는 LED의 개체가 가지는 단순성의 한계점을 넘어 감상자의 시선과 시각에 따라 다양한 화면으로 변화한다. 이는 자의적 생명을 가지고 있는 셀(cell)의 집합체를 통한 심미성으로 감상의 폭을 확대하여 조형미를 제공 한다. 작가가 유리 막대의 결합을 통해 시차(視差, parallax)를 이루고자 하는 점은 대 우주 공간의 고정된 먼 배경이 화면 안에 존재하는 상황에서 색 또는 불분명한 형상의 물체를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감상자가 관측했을 때 발생하는 색상, 형상의 차이 또는 변위(displacement, 變位)를 시각화로 완성 하고자 하는 점이다. 이는 시각미술의 제한적 관념을 넘어 조형미술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 해 주고 그를 통해 회화가 가질 수 있는 감상자의 상상력을 확대 시켜 줄 수 있는 새로운 미적 체험을 제공 하여 준다.

서양화가 전찬훈이 작업의 모티브로 삼는 '빛이 있으라'는 성서에 표현되는 태초에 신이 창조하신 빛은 물질이 아닌 섭리(攝理, Vorsehung)자체를 말하는 것이다.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 보이지 않는 실상과 존재하는 것, 영에서 허상, 그림자인 물질로 변환되는 섭리 등 우리가 영적으로 가지는 빛은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을 것 이다. 작가는 이 부분을 실재와 부재(無)에 대한 인식들 사이에 놓여 있는 어떤 간극 내지는 공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전찬훈작가는 자신을 소멸하여 타자를 이루는 빛을 통해 시공간적 한계를 넘어서는 독창적인 명령을 하고 있다.

Fiat Luxs! (빛이 있으라!)

글. 편집부



산업과 예술의 동행 2022 한일미술교류

“Today-唐津”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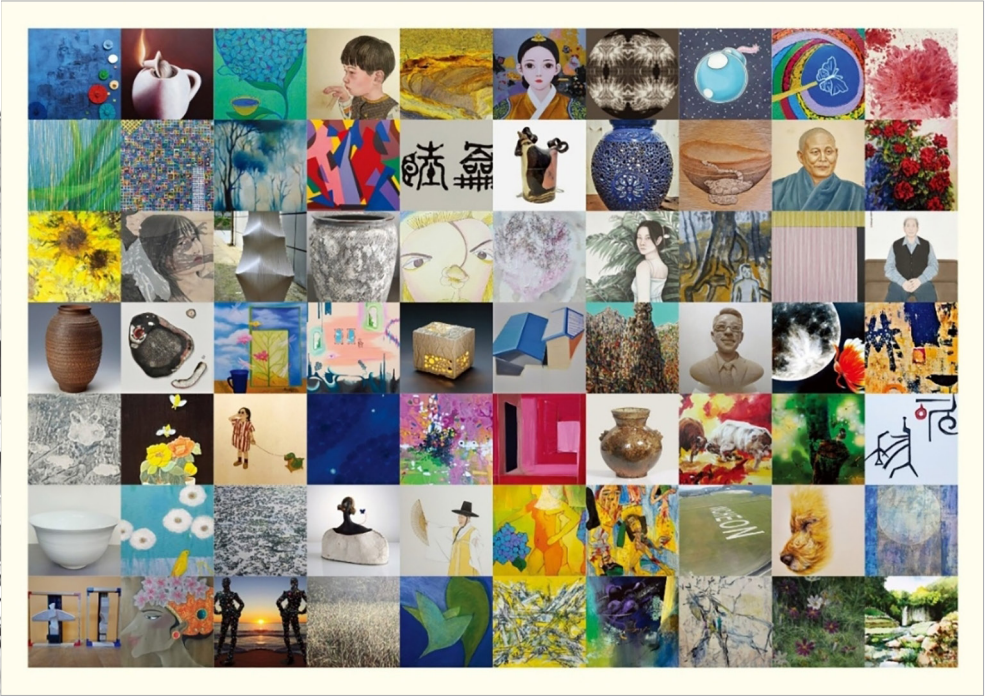
영진철강 미술관 기획초대
2022 한일미술교류 “Today-唐津”展

2022. 11. 10 (목) - 11. 30 (수)

오프닝초대일시: 2022. 11. 11(금) 오후 1:00
갤러리도크 콘서트: 2022. 11. 12(토) 오후 2:00

후원: 영진철강 주식회사
주최: 영진철강 미술관
기획: 김아천, 이도경

영진철강미술관
충남 당진시 신평면 소창길 148-10



—참여자작가(한국)—

강다희 고봉주 구원선 권오섭 권지현 금원섭 김가령 김루하 김명옥 김복원
김미정 김성로 김성은 김아천 김용남 김재열 김점숙 문영호 박동구 박롬빈
박성민 박태연 박태준 백태현 소준희 엄순미 유기순 유은영 윤미선 윤세연
이강일 이경해 이도경 이명자 이선애 이숙희 이예린 이옥경 이정자 이종호
이현국 임경희 임정민 임정희 임헌자 장보빈 정다혜 정영호 정인자 정호경
조화영 최연숙 최윤정 최의열 한용화 한일숙 함승희 허 재 황경희 황혜민

—참여자작가(일본)—

上條 陽子 田中一光 朴明蘭 河口聖
山口清治 山田陽子 魚田元生 石原智是
伊藤理恵子 小堀令子 八田怒使那 樋口慶子



영진철강미술관 충남 당진시 신평면 소창길148-10

2022 행주산성 스케치대회

-新행주산성 완전정복 시민참여형 공공프로젝트

2022 행주산성 스케치대회

주 제 행주산성 어반스케치
참가자격 제한없음(당일 현장접수)
참가비 무료
대회일시 2022년 11월 12일(토) 오전10시 ~ 오후3시
작품제출 본부석제출(오후3시 마감)
심사 2022년 11월 12일(토)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
심사발표 2022년 11월 12일(토) 오후 5시 예정
시상일시 2022년 11월 중

전시장소 행주산성 주요시설물 및 탐방로
“행주산성 어반스케치 특별전”
(사)한국미술협회 고양시지부
T. 031-906-8643-4

문의처 (사)한국미술협회 고양시지부
T. 031-906-8643-4

※화지 한정배부 (대회 관인없는 화지는 제출불가)
채색도구 개인지참 (아크릴, 연필, 수채물감 등 자유표현)

시상내역	상명	발급기관	시상인원	시상내용
대상	시상장	고양특례시	4명	상장, 기념품
금상	고양시 의정장	고양특례시의회	4명	상장, 기념품
은상	국회의원상	국회의원실	4명	상장, 기념품
동상	한국예총 회장상	한국예총	4명	상장, 기념품
최우수상	한국미협 이사장상	한국미협	4명	상장, 기념품
우수상	고양예총 회장상	고양예총	8명	상장, 기념품
장려상	기암합천	(주)기암씨채	20명	상장, 협찬품
특선	고양미협회장상	고양미협	비례선발	상장
입선	이음상	문화컨텐츠 이음	비례선발	상장

※상장발급의 상황에 따라 상장 및 발행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최: 고양특례시
주관: (사)한국미술협회고양지부
후원: (사)한국미술협회고양지부

고양특례시 주최로 예술인 전문가와 아마추어 시민들이 참여하여 행주산성의 주요시설물과 풍경을 스케치로 담은 시민참여형 공공프로젝트 ‘행주산성 스케치대회’가 2022년 11월 12일(토) 행주산성에서 개최되었다.

대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었으며, 학생부 대상은 백석초 3학년 염준하 학생과 일반부 대상은 고다옥 참가자에게 각각 돌아갔다.

심사위원장 박승범 화백은 ‘어린 학생들의 작품은 순수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독특한 표현들과 재미있는 구성력과 색상의 다양함에 있어서도 우열을 가르기 힘든 작품들이 많았으며, 일반부 참가자들의 작품은 표현력과 완성도가 뛰어난 작품성 있는 수작들이 많았고, 대회가 매년 지속되어 많은 사람들이 행주산성을 찾는 발걸음이 끊임 없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라고 심사평을 남겼다.

이번 대회의 시상식은 12월 3일 고양관광정보센터 영상관에서 있을 예정이다.



제37회 전국공모 모란현대미술대전



한국미술협회 성남지부는 매년 서양화,한국화,서예,조각,공예,디자인, 문인화,사진작품을 전국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공모받아 심사,시상, 입상작품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어 전국의 미술인들의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1차 서류접수:2022.11.1(화)

접수장소: 1329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71번길 10

성남아트리움1층 성남미협 (Tel:031-757-1050)

2차 작품접수:2022.11.18(금)

접수장소:성남아트센터 갤러리808(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808)

Tel:031-783-8000

심사발표:1차-2022.11.4(금),2차-2022.11.19(토)

시상식:2022.11.22(화) 오후3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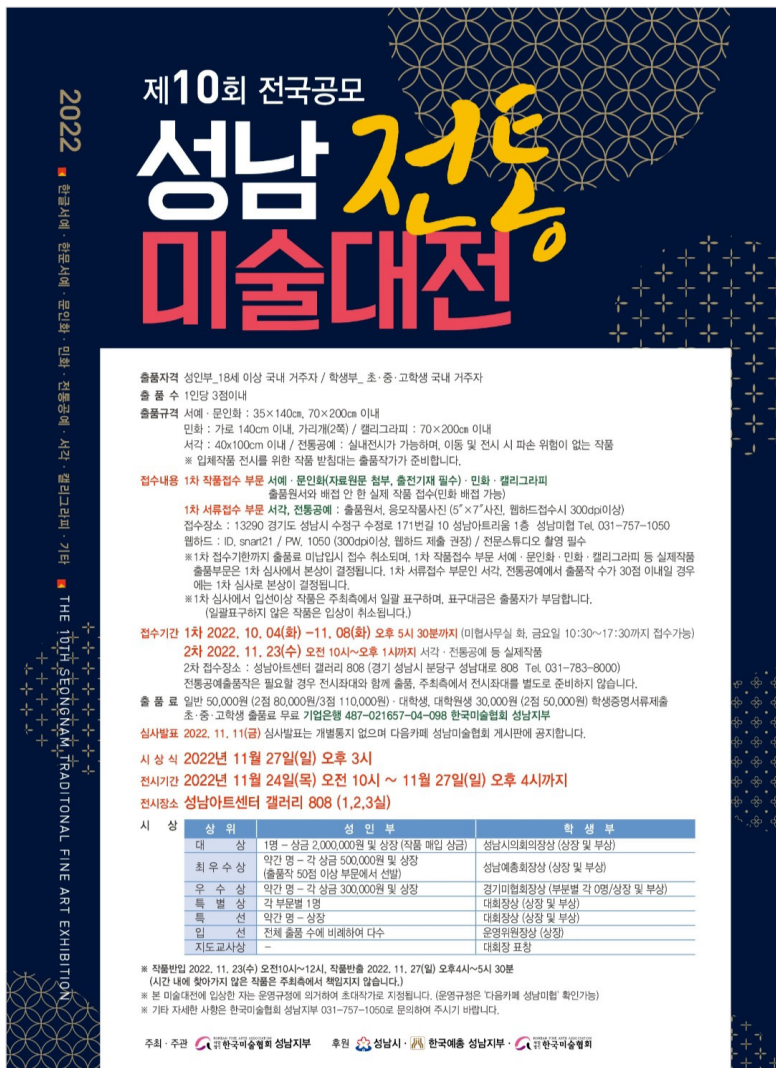
전시기간:2022.11.19(토)~2022.11.22(화)

전시장소:성남아트센터 갤러리808(1,2,3실)

주최/사) 한국예총 성남지부

주관/사) 한국미술협회 성남지부

제10회 성남전통미술대전



유난히도 고운 형형색색의 단풍이 길게 물들어가고 있는 즈음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 시켜온
제10회 성남전통미술대전을 개최합니다.

접수기간:1차 2022.10.4(화)~2022.11.8(화)

접수장소: 1329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71번길 10

성남아트리움1층

접수기간:2차 2022.11,23(수)

접수장소:성남아트센터 갤러리808

시상식:2022.11.27(일) 오후3시

전시기간:2022.11.24(목) 오전10시~2022.11.27(일) 오후4시까지

전시장소:성남아트센터 갤러리 808(1,2,3실)

문의:성남미협 Tel:031-757-1050

주최/주관 사) 한국미술협회 성남지부



오산미술협회 정기전 & 소소한 아트판매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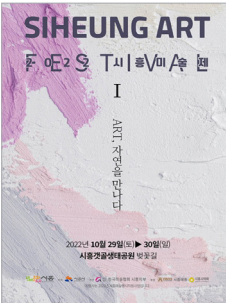
오산시립미술관 3층
2022.11.29.(화)~12.10.(토)

Opening : 2022.11.29.(화) 오후 5시



인천아시아아트쇼 2022

장소 송도컨벤시아 2~4홀
기간 2022.11.16.(수)~11.20.(일)
시간 10:30 ~ 19:00
2022.11.16 (수) 15:00 - 개막식
2022.11.20 (일) 10:30 ~ 17:00



2022 시흥 정기회원전 : 시흥미술제

1부 : ART, 자연을 만나다
시흥갯골생태공원
10.29.(토)~10.30.(일) (10시~16시)
2부 : 人, 만나고 싶다!
갤러리시흥(ABC행복학습타운내)
10.31.(월)~11.6.(일) (10시~18시)



안광수 개인전

교하아트센터 2022.11.17.(목)~11.22.(화)
김대년갤러리 2022.12.06.(화)~12.19.(월)

오래된 것의 새로움- 아직도 점토로 빚고 석고로 주형을 떠내는 원시적 제작방식을 고수하며 허리가 굽어질 듯한 고통에도 작업 중간에는 제대로 실수조차 없는 힘든 노동을 감내한다.



제15회 국제미술교류전

교하아트센터
2022.10.22(토)~10.30(일)

북한, 중국, 일본 작가와 파주미협 회원작가와 함께 작품을 교류하는 특별한 전시회. 한민족 북한작가와 함께 DMZ파주지역에서 전시함으로써 더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았다.



제12회 소사별 야외 조각전

평택호 예술관
2022 10/9.(일)~11/6.(일)

평택호예술관에서 펼쳐지는 소사별야외조각전에서 15인의 다채로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주관 (사)한국미술협회 평택지부



제16회 고현희 개인전 : 자연과 일상의 조화

갤러리 포토하우스
2022.11.23.(수)~11.29.(화)

Opening : 2022.11.23. 오후 5시



제21회 화성미협 정기전 : 꿈의 날개

동탄 아트스페이스
2022.10.04.(화)~10.08.(토)

Opening : 2022.10.04 오후 4시
주관 (사)한국미술협회 포천지부



제4회 향일의 혼을 깨우다

용인시청내 문화예술원 대전실
2022.10.04.(화)~10.09.(일)

용인의 역사 · 문화의 미술아카이브전
Opening : 2022.10.05(수) 오후 5시
주관 (사)한국미술협회 용인지부



한내의 두번째 이야기전

필산리 한내천 꽃길/갤러리 창고
2022.10.22.(토) 오전 10시

지역의 소중한 자연환경인 한내(한천)을 주제로 지역의 주민과 예술인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올해는 8명의 예술인들이 다양한 설치미술을 만들어 한내 주변에 전시했다.



제22회 의왕미술협회전

의왕시 평생학습관
2022.10.25.(화)~10.31.(월)

Opening : 2022.10.25.(화) 오후 5시
의왕미술상, 의왕미술작가상, 공로상 시상식
의왕시 평생학습관



제25회 여주미협회원전

아트뮤지엄 러
2022.11.09.(수)~11.23(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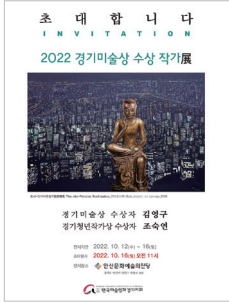
여주미술협회의 41명의 회원들이 한데모여 아트뮤지엄 러에서 전시되며 아트뮤지엄 러는 여주프리미엄 아울렛 WEST 퍼블릭마켓 내에 있다.



제24회 동두천지부 회원전 : 아름다운 시선

동두천 중앙역 2층 로비
2022.10.19.(수)~10.23.(일)

오프닝 2022.10.22.(토) 오후 3시
주관 (사)한국미술협회 동두천지부



경기미술상수상작가전

안산문화 예술의전당
2022.10.12.(수)~10.16.(일)

경기미술상 수상자: 김영구
경기청년작가상 수상자: 조숙연
오프닝/시상식: 2022.10.16.(일) 오전 11시
안산문화 예술의전당



동두천청소년미술대전

접수기간 : 2022 10.05.(수)~10.18.(화)

화지 배포 : 2022.10. 24.(월)
공모기간 : 2022. 10.25.(화)~11.04.(금)
작품접수 : 우편접수,방문접수
문의 010-3478-5707
이메일: znf0077@gmail.com



이지향 개인전

인사아트프라자 1층
2022.11.23.(수)~11.28.(월)

기약화(期約花)
Opening : 2022.11.23.(수) 오후 4시



모란현대미술대전

성남아트센터 갤러리 808
2022.11.19.(토)~11.22.(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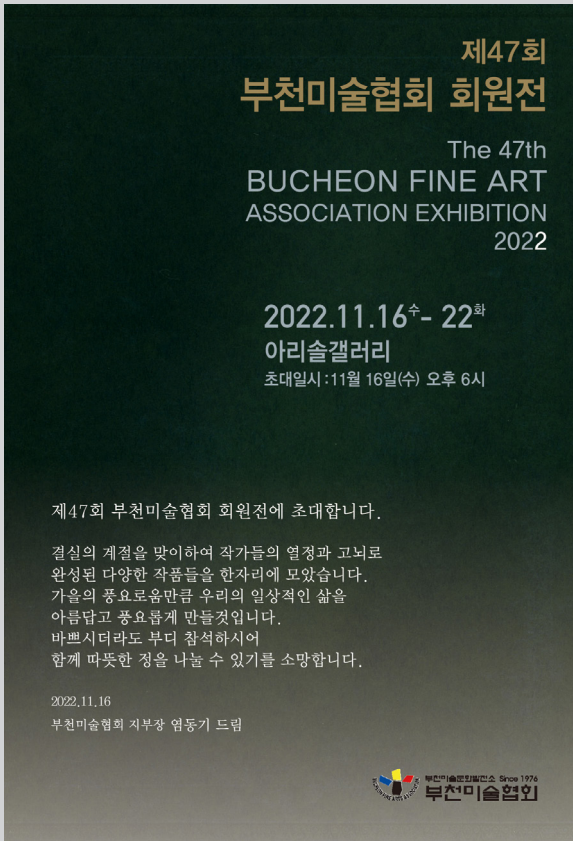
1차 서류접수 2022.11.01.(화) 5:30분까지
2차 작품접수 2022.11.18.(금)
오전10시~오후12시까지
시상식 2022.11.22.(화) 오후3시



제28회 과천미술협회전

과천시민회관 2층 전시실 '마루+아라'
2022.11.09(수)~11.14(월)

Opening : 2022.11.09.(수) 오후 5시
주관 (사)한국미술협회 과천지부



2022년 제47회 부천미술협회 회원전

아리솔갤러리
2022.11.16(수)-11.22(화)

주관 (사)한국미술협회 부천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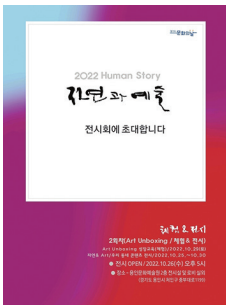


2022 대전국제아트쇼

대전과 해외로부터의 예술작품 교류와 결집을 축하하는 대전국제아트쇼 2022는 전 세계 20개국 작가들이 참여해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미적 경험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국내외 유명 작가들이 참여해 각국 간 문화 소통을 촉진하고 대전 미술시장의 자율적 성장을 꾀할 계획이다.

대전컨벤션센터(유성) 제2전시장
2022.12.10.(토)~12.13(화)

주최 (사)한국미술협회 대전광역시지회



2022 Human Story : 자연과 예술

용인문화예술원 2층 전시실 및 로비
OPEN 2022.10.25.(수) 오후 5시

Art Unboxing 2022.10.29.(토)
자연& Art 2022.10.25.~10.30



한명자 개인전

큰숯제빵소
2022 11.13.(일)~11.26.(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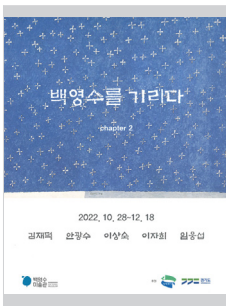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애니폴길 118



제22회 양주시부회원전

양주시립미술창작스튜디오
2022.09.01.(목)-09.07.(수)
오프닝 2022.09.01(목) 오후5시

*제16회 양주시부테마전
덕계공원 2022.09.01(목)-09.07(수)



백영수를 기리다 chater 2

백영수 미술관
2022. 10.28.(금)-12.18.(일)

〈오마주백영수〉탄생 100주년
경기북부의 미술협회를 대표하는 지부장 5인이 참여하는 전시.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사업



이두선 개인전

서울 리베라호텔 청담
2022.11.11.(금)-11.1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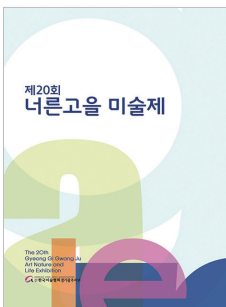
SIHAF 2022
서울국제호텔아트페어



제31회 구리미협전

구리아트를 갤러리
2022.10.11.(화)-10.1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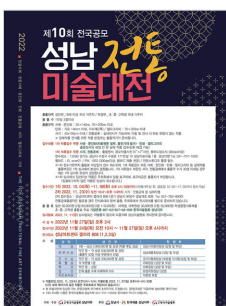
Opening : 2022.10.11 오후 5시
주관 (사)한국미술협회 구리지부



제20회 너른고을미술제

영은미술관 제1전시실
2022.09.23.(금)-10.03.(월)

오프닝 2022.09.23.(금) 오후4시
광주시민 무료관람
주관 (사)한국미술협회 광주지부



성남전통미술대전

성남아트센터 갤러리 808(1,2,3실)
2022.11.24.(목)~11.2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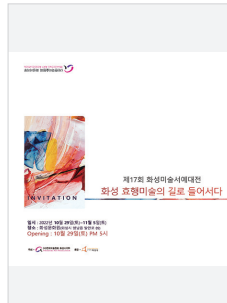
1차 2022.10.04.(화) 5:30분까지
2차 2022.11.23.(수)
오전100시~오후1시까지
시상식 2022.11.27.(일) 오후3시



오산 예술을 나누는 달력전

오산미술협회 주관의 아트판매전은 30만원 미만의 소소한 작품판매전이며 수익금 일부와 달력판매수익의 전체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액 기부되는 행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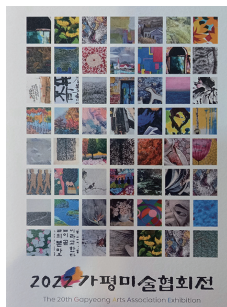
후원 문의
사무국장 : 010-3719-6896



제17회 화성미술서예대전 : 화성 효행미술의 길로 들어서다

화성문화원
2022.10.29.(토)~11.05.(토)

오프닝 2022.10.29.(토) 오후 5시
주관 (사)한국미술협회 화성지부



제20회 가평미술협회전

가평문화예술회관
2022.10.19.(수)-10.25(화)

Opening : 2022.10.19 오후 3시
가평문화예술회관
주관 (사)한국미술협회 가평지부



2022 행주산성스케치전

고양관광정보센터 1층
2022.12.03.(토)~12.30.(금)

시상식 2022.12.03.(토) 오후 2시
문의 031-906-8643
고양미술협회 사무국



제26회 관악현대미술대전

1차접수 2022.10.31.(월)-11.03.(목)
2차접수 2022.11.11.(금)-11.12.(토)

시상식 2022.11.26.(토) 오후 2시
전시 2022.11.21.(월)-11.26.(토)
평촌아트홀 전시실
주관 (사)한국미술협회 안양지부



성남아트페스티벌

성남아트센터 갤러리808
2022.10.27.(목)-11.05.(토)

오프닝 2022.10.27.(목) 오후 5시
www.snart.kr



노작미로 : 가을에 스며들다

홍사옹 문화거리 2022.9.24.(토)~10.29.(토)

화성 시민이 기획한 문화예술행사
-다리 밑 어린이 연극제
-종집&업사이클링 작품만들기
-노작미로 재활용 마켓
매주 토요일 11시~19시



국제현대미술 청년작가공모

접수기간 2022.10.26.(수)~11.11.(금)
심사발표 2022.11.19.(토)

사)경기미술협회가 발행하는 미술전문 계간지

<경기룩아트_GGLA>지 무료구독 안내

1년에 4회, 우편요금 10,000원을 계좌로 입금해주시고,
이름, 소속지부, 연락처,주소를 이메일이나 문자로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요금 입금계좌

농협 301-0310-219521
예금주 한국미술협회 경기도지회

신청이메일 & 연락처

E-mail: artkk4@daum.net
사무처장: 김은정 010-3719-6896



경기룩아트에서 다양한 미술관련 정보와 전시홍보까지 한 번에

.....
전시 콘텐츠 공유 플랫폼

경기 LOOK-ART

다양한 기기로 접속 가능한 '경기룩아트'를 방문해 보세요.
스마트폰, 태블릿 PC로도 언제나 접속할 수 있습니다.

발행인	조운희
편집장	김재덕
편집위원	박수현, 안태이, 엄순미, 이민신, 한소영
발행처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경기도지회 제1사무실 16488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7번길 20 (경기도문화의전당 내) T. 031-239-0083 제2사무실 18131 경기도 오산시 오산천로 271(오산문화스포츠센터 내 4층) 회장 조운희 010-2364-6185 / 사무처장 김은정 010-3719-6896
홈페이지	http://klookart.org
디자인	디자인포레
제작처	(주)미성아트

경기도에서 진행되는 미술관련 행사 및 교육정보를 확인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관련 자료에 대한 아카이빙을 지원합니다.



카테고리별 검색으로 쉽고 빠른 검색

- [분류 ▼] 전시공모, 개인전, 기획/단체전, 문화행사, 페스티벌, 교육 기타 등 원하는 자료 검색
- [연도 ▼] 행사 시기별로 검색
- [지역 ▼] 경기 31개 시, 군별로 자료 검색 및 등록



경기도의 작가와 미술관 정보

- [기억하고 싶은 작가 ▼]
경기지역 대표작가들의 작품활동 소개
- [미술관 탐방 ▼] 경기지역 전시공간 소개



아카이빙으로 무료전시 홍보

개인전, 단체전, 공모전 및 시각관련행사의
정보를 업로드하여 홍보할수 있습니다.

아카이빙 등록 절차



아카이빙 자료 등록안내



등록정보

개인전 및 단체전일 경우

- 전시제목은 영, 한문 있을 시에 같이 표기합니다.
단체전일 경우 참여작가 전체명을 '가나다' 순으로 배열하여 기재합니다.
- 전시기간을 기재합니다.
- 오픈시간 전시장 개장시간을 기재합니다.
- 분류 항목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공모 및 시각관련 행사일 경우

- 전시제목은 공모(행사)명 (공식명칭 표기)으로 표기합니다.
- 전시기간 공모(행사)기간을 기재합니다.
- 오픈기간 행사및 전시개장시간을 기재합니다.
- 분류 항목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행사장 정보

- 전시행사 장소명은 한글, 영문같이 표기합니다.
- 주소를 기재 합니다.
-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 합니다.
- 전시 및 행사정보에는 오픈닝 시간, 공모마감 일시(초대일시) 및 휴관일 등을 기재 합니다.
- 전화 연락처를 기재 합니다.
- 입장료/관람료가 없을시 "없음"으로 기재 바랍니다.

전시내용

- 공모(행사일정)요강 관련 텍스트
- 행사주관단체 정보 / 주최, 주관, 후원 등 명기
- 단체명 (주소 / 전화번호 / 이메일 / 홈페이지주소)
※공모(행사)포스터 게재 가능합니다.

작품캡션

- 작품이미지를 올리실 때 이미지아래 작품캡션을 기록해 줍니다.
전체작품 이미지는 5컷이내로 제한합니다.
- 단체전일 경우 대표작가를 선정하여 5컷이내로 게재해 주십시오.)
- 작품에 대한 정보를 '이름_제목_재료_크기 또는 길이 세로×가로×깊이 _제작년도' 순으로 기재 바랍니다.
- 작품사이즈에서 단위(cm,m,inch...)를 꼭 기재 바랍니다.

전시서문, 작가노트, 평론

- 200자 원고지 2~5매 분량의 전시를 설명하는 글
보도자료 형식의 글을 자체 바랍니다.
- 글쓴이 이름을 꼭 기재 바랍니다.
- 영문텍스트 게재 가능합니다.
작품이미지와 텍스트를 적절히 혼용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기타

- 부대행사가 있을 경우 간략하게 행사명, 일시, 장소 첨부하여
작가 이력, 경력, 약력, 로고는 게재하지 않습니다

